

| | | | |
|-------|-----------------------|-------|------------------------|
| 보도 일시 | 2022. 7. 26.(화) 09:00 | 배포 일시 | 2022. 7. 26.(화) 09:00 |
| 담당 부서 |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책임자 | 과장 김도영 (044-203-3241) |
| | | 담당자 | 주무관 이숙은 (044-203-3248) |

한국 도서 수출상담회로 출판 한류의 일본 시장 진출 속도 낸다 - 7. 28.~29. 일본에서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7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일본 도쿄의 '파크 하얏트 도쿄(Park Hyatt Tokyo)'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을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 수출상담회, 2년 만에 비대면에서 대면 상담으로 전환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상담회로 전환해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0년 비대면 수출 상담에 이어 개최되는 올해 일본과의 상담회는 현장에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출판시장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인 국가로서, 최근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일본에서의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가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서른의 반격>이 또다시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28만 부가 판매된 <82년생 김지영(조남주)>, 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김수현)>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국 도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하완)>,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민지형)>, <눈먼 자들의 국가(김애란 등)>, <BTS를 철학하다(차민주)>, <1cm+>, <모든 순간이 너였다(하태완)>, <꽃을 보듯 너를 본다(나태주)>,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와 그림책 <알사탕(백희나)>, <수박수영장(안녕달)> 등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도서 독자층이 30대~40대 여성에서 10대~20대로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작가의 수필(에세이)이 일본 10대~20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들이 강력한 독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출간되는 한국도서 콘텐츠 분야가 다양해지고, 한국도서가 연극, 만화 등으로 재가공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의 추천 도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인기가 이제는 책의 콘텐츠 자체에 대한 소비로 옮겨가면서 제4차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 20개사, 일본 35개사 참가, 한국 위탁 도서 270여 종도 전문가 상담

이번 도서전에는 일본 대표 출판사인 분게이슌쥬(文藝春秋)¹⁾, 각켄((株)学研)²⁾, 포푸라사(株式会社ポプラ社)³⁾와 일본 최대 해외 저작권 중개회사(에이전시)인 터틀모리 에이전시(Tuttle-Mori Agency)⁴⁾ 등 일본 출판사 35개사가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문학동네, 천재교육, 미래엔, 다산북스 등 20개사가 참가하며, 출판저작권 중개회사인 제이엠(JM)콘텐츠 에이전시가 참가해 국내 위탁 도서 270여 종의 수출 상담을 대행한다.

- 1) 1923년 설립된 일본 대표 출판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 등 전통 있는 문예상을 수여
- 2) 일본 대표 아동출판사로, 초중등 참고서, 아동 단행본, 교육서 등 다수 베스트셀러 출간. 한국도서 <이상한 손님(백희나)>, <Why? 시리즈> 일부 등 수출
- 3) 1947년 설립된 아동출판사로, ‘엉덩이 탐정’, ‘웜피키드’ 등 인기 작품 다수 출간. 한국도서 <당근유치원(안녕달)>, <플라스틱 섬(이명애)> 등 수출
- 4) 일본 번역출판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일본 최대 해외 저작권 에이전시

행사 첫날인 28일(목) 오전에는 일본 출판시장을 소개하는 발표회(세미나)도 2차례* 열린다. 일본 출판 관계자가 직접 일본 출판시장 현황과 경향을 소개하고 한국 출판사와 교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 * ① 일본 출판산업 현황 및 경향(히구치 세이치, 일본출판협회 이사), ② 일본 아동서 현황 및 경향(노가미 아키라, 일본아동도서협의회 부회장)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이번 도쿄 수출상담회에 이어 오는 9월에는 베트남에서, 11월에는 북미 지역에서 국내외 출판기업 간의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 도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한국 작품이 알려져 일본 독자층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 출판콘텐츠가 2차 상품으로 개발되는 등 출판 한류가 가속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 방식을 병행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 참가사 명단
2. ‘찾아가는 도서전’ 상징(로고) 및 상담장(예시)
3. 일본 내 한국도서 베스트셀러



붙임 1

2022년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 참가사 명단

| 한국 출판사 | |
|--------|-----------|
| 1 | (주)다락원 |
| 2 | (주)다산북스 |
| 3 | (주)미래엔 |
| 4 | (주)연두세상 |
| 5 | (주)예림당 |
| 6 | (주)천재교육 |
| 7 | 계수나무 |
| 8 | 고즈녁이엔티 |
| 9 | 도서출판 키다리 |
| 10 | 도서출판 폭스코너 |
| 11 | 문학동네 |
| 12 | 봄봄출판사 |
| 13 | 북극곰 |
| 14 | 산지니 |
| 15 | 웅진씽크빅 |
| 16 | 주식회사 리스컴 |
| 17 | 천개의바람 |
| 18 | 킨더랜드 |
| 19 | 한솔수북 |
| 20 | (주)엠스토리허브 |

| 일본 출판사 | |
|--------|-------------------------------|
| 1 | ALC |
| 2 | Astrahouse(株式会社アストラハウス) |
| 3 | Bungeishunju(文藝春秋) |
| 4 | Chikumashobo(株式会社筑摩書房) |
| 5 | CUON(株式会社クオン) |
| 6 | EastPress |
| 7 | Froebel-Kan(株式会社フレーベル館) |
| 8 | Fusosha(株式会社扶桑社) |
| 9 | Gakken Plus((株)学研プラス) |
| 10 | Gendaijinbun-sha(株式会社現代人文社) |
| 11 | HANA(株式会社HANA) |
| 12 | Harashobo (原書房) |
| 13 | Hayakawa(株式会社早川書房) |
| 14 | Hotakabooks |
| 15 | Hyoronsha(株式会社評論社) |
| 16 | Ichijinsha(株式会社 一迅社) |
| 17 | Japan Uni Agency(日本ユニージェンシー) |
| 18 | Kawade Shobo(株式会社河出書房新社) |
| 19 | Kinema Junposha(株式会社 キネマ旬報社) |
| 20 | Misuzu Shobo |
| 21 | Otsukishoten(株式会社大月書店) |
| 22 | PHP INSTITUTE(株式会社PHP研究所) |
| 23 | Pie Comic Art |
| 24 | PieBooks / PIE International |
| 25 | Poplar(株式会社ポプラ社) |
| 26 | Sekaibunkabooks((株) 世界文化ブックス) |
| 27 | Shobunsha(株式会社 晶文社) |
| 28 | Shogakukan(小学館) |
| 29 | Stardust Pictures (株式会社SDP) |
| 30 | SunMark(サンマーク出版) |
| 31 | Surugadai(駿河台出版社) |
| 32 | TabaBooks(合同会社タバックス) |
| 33 | Tatsumi(辰巳出版株式会社) |
| 34 | TOYO KEIZAI |
| 35 | Tuttle-Mori Agency |

붙임 2

<찾아가는 도서전> 상징(로고) 및 상담장(에시)



붙임 3

일본 내 한국도서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1cm>



<아홉 살 마음 사전>



<모든 순간이 너였다>



<수박 수영장>



<살아남기> 시리즈